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 병 두**

Impacts of Immigrant Workers on Regional Economy in S. Korea*

Choi, Byung-Doo**

요약 : 지구-지방화를 배경으로 일반 상품, 자본 및 기술과 더불어,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지역경제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의 노동시장, 생산성 그리고 산업구성 및 생산체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 자료와 기존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추론하고자 한다. 단순화의 문제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내의 단순 노동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한편 노동시장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 노동력의 지위를 보완적으로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의 협상력 저하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생산성은 단기적으로 중대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유지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들의 낮은 구매력은 소비시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산업체구조화를 통한 신규 업종으로의 전환이나 생산설비의 자동화 및 혁신을 지연시켜서 지역 산업구성의 고도화를 제어하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해외직접투자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해외 이전에 따른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막아 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주요어 : 이주노동자, 지역경제, 국제이주, 산업체구조화, 노동시장, 지역생산성

Abstract : Recently international movements of labour as well as those of goods and other production elements such as capitals and technology have been increased rapidly under the process of glocalization. The huge amount of immigrant workers' in-flows makes increasing influences on regional economy in South Korea. This paper examines such impacts of immigrant workers on local labor markets, productivity, and industrial composition and innovation on the basis of analysis of empirical data and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on the subject. Despite a problem of simplification, some reasoning can be list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n-flow of immigrant workers has an effect of job displacement among domestic simple workers, with duel effects on the status of native workers; secondly, Immigrant workers give a positive effect on local productivity, but only with low level of wage and of purchasing power; thirdly, the in-flow of immigrant workers seems to prevent existing industries from transformation towards new ones and/or from automation and innov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while there seems no clear relationship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s of local firms.

Key Words : Immigrant worker, regional economy, international migration, industrial restructuring, labor market, regional productivity.

1. 서 론

오늘날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 일반 상품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하기 위한 요소들, 즉 자본과 기술(정보),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이 가속화되고, 지역적 투입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생산요소들의 국제 이동은 현대 사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전반에 걸쳐 발생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시공간적 압축에 뒷받침된 생산요소들의 지

리적 이동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규모 및 특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생산요소들의 지리적 이동 가운데 흔히 자본의 이동성이 노동의 이동성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으로 간주되지만, 최근에는 노동의 국제 이동이 자본의 지리적 이동에 내재된 한계를 보완하거나 또는 이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Rosewarne, 2001).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체류 외국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가운데 특히 큰 비중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2-B00024)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bdchoi@daegu.ac.kr)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차지는 유형은 취업비자 또는 연수 비자를 가지고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단순 이주노동자들로, 1990년 2만 명 정도에서 2000년 23.6만 명, 그리고 2008년 말에는 52.9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는 전체 외국인 이주자의 45.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총취업자의 2.3%, 임금노동자의 3.2%에 해당한다. 이주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되어, 국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더욱 높아지고, 국내 산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 증가는 국내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업종들(이른바 3D 업종)들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 특히 노동력 부족에 봉착한 개별 기업이나 지역경제는 국외로부터 이주노동자의 유입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예로 탈노동집약적 신규 업종으로의 전환,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 생산설비의 자동화와 혁신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 노동력의 부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저임금에 따른 비용 절감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개별 기업의 이윤 획득과 지역경제의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대안적 방법들을 강구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선택하는 것은 단기적 이해관계의 실현을 우선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기업들은 저렴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생산설비의 자동화 및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연과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한편, 기존 노동력의 대체로 인한 실업 증대나 협상력 저하에 따른 노동조건의 악화(저임금 및 노동 강도의 증대)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주노동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첫째,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경제의 조건과 이주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예로 지역 경제가 호황기인가 불경기인가, 어떤 업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지역 노동시장은 어떤 직종으로 구성되어있는가 등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이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은 이중적 영향, 즉 긍정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역경제의 다양한 측면들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측면에서 긍정적일지라도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셋째, 이주노동자와 지역경제의 변화 간 인과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정교한 수학적 모형들이 자료의 부족을 보완해 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수학적 모형으로 영향을 측정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논문은 급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 자료와 기존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추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노동력의 국제 이주를 촉진하고 있는 지구-지방적 배경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이주 노동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주노동자의 유입 추세와 관련 정책, 그리고 이들의 업종별 및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고 또한 이들이 유입된 지역의 경제 특히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 이주노동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시장, 지역 생산성 그리고 지역산업구조 및 생산체계의 변화 등으로 세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노동력 국제 이주의 배경과 영향: 이론적 고찰과 연구 동향

1) 노동력 국제 이주의 지구-지방적 배경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과정은 상품이나 자본 그리고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일반 상품과 더불어 이러한 생산요소들의 국제적 이동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양과 성격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과거 상품이나 자본과

기술, 인구의 국제 이동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의 틀(즉 보호와 제약)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지구-지방화 과정은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나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적 상호관계를 치밀화시키는 한편, 세계의 각 지방 경제를 재구조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전략 하에서 추진됨에 따라, 일반 상품과 자본, 기술 그리고 노동력은 기존의 국민국가의 보호나 제약을 벗어나 훨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Overbeek(2002)은 지구-지방화 과정이란 생산요소들의 상품화와 더불어 이들의 시장관계의 국제적 팽창, 즉 상품화된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생산요소들에는 일반 상품이나 자본,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 노동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구-지방화 과정을 통해, 세계인구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은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에 직접 통합되고, 국지적, 국가적 노동시장은 지구적 노동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물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도 생산요소들이나 일반 상품들의 국제적 이동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들이 자유로운 이동성을 확보하게 된 시기도 다소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자본(특히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매우 자유롭고, 이러한 자유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서 생산설비와 같은 해외직접 투자는 다른 국가의 특정 지역에 투자되어 일단 고정자본을 형성하게 되면, 하비(Harvey, 1982)가 주장한 '공간적 조정'(spatial fix)의 효과로 인해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전하기 어렵다. 노동력은 국제적 이동이 가장 어려운 요소로서, 이에 대한 국가의 통제도 다른 생산요소들의 이동에 비해 훨씬 엄격하다. 노동력의 국제 이동은 이의 상품화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 노동력은 단순한 상품이라기보다 다른 여러 부수사항들(개인적 특성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에 일단 외국인 이주자가 유입되면, 이들은 단순히 특정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력으로 임금 지불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요구(즉 사회복지)의 충족을 전제로 하며, 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자본의 국제 이동은 노동의 본격적 국제 이동 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노동의 신국제분업 과정에서, 서구 선진국들의 노동집약적이고 노후한 산업들은 아시아와 남미의 저임금국가들로 이전되었다. 프로벨(Frobel et al., 1980)에 의하면, 이러한 노동집약적 생산과정의 재입지에는 3가지 기본요소들, 즉 노동집약적 생산과정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포드주의적 생산체계의 발달, 이전 대상국에서 저렴한 노동력 풀의 존재, 그리고 생산설비의 분산을 촉진하는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 등이 전제된다. 이들은 "이러한 3가지 조건들의 접합은 --- 단일한 세계 노동력시장, 즉 진정하게 세계적인 산업예비군 그리고 생산입지를 위한 단일 세계시장을 창출했다"고 결론지운다 (Frobel et al., 1980, 30). 그러나 이들은 생산설비와 같은 고정자본의 지리적 이동은 상당한 비용을 요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으며, 또한 이 문제를 (최소한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 노동의 국제적 이주가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지구-지방화 과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대체로 자본의 지구적 이동과 국지적 차근, 즉 자본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자본의 이동이 영토적으로 차별화되고 파편화된 다른 이유들로 인해 자유롭지 못할 때, 또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더 높은 이윤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할 때, 자본은 국가의 지원 하에 노동의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물론 노동력의 국제이주는 자본의 국제 이동에 비해 국가에 의해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지만, 또한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한 자본의 요구에 따라 촉진되기도 한다. 즉 자본은 국가의 지원으로 지구적 규모에서 노동력의 국제이주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국지적인 물질적, 사회적, 시공간적 제약들로부터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킬 것이다. 노동력의 국제이주는 결국 자본주의 경제발전 과정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 내적 모순을 대체시킬 수 있는 자본의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구-지방화 과정에서 노동력의 국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주가 촉진되게 된 것은 우선 세계적 차원에서 지역불균등발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요소들의 지리적 이동성을 급증시키고 ‘시공간적 압축’을 통해 자본의 축적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이나 자유시장의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표면의 각 국가들이나 지역들 간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등발전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초공간적 이동성을 가지게 된 자본은 어떤 국가나 지역일지라도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여 얻어진 부를 소수의 세계도시나 국가들로 집중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발전국들은 자본의 유치조차 어렵게 됨에 따라, 실업과 빈곤을 악화시키고 결국 국내 유휴 노동력을 해외로 송출하게 된다. 반면 시장개방과 탈규제 등을 통해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게 된 선진국이나 지역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국가의 일정한 통제 하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을 촉진하게 되었다.

물론 유휴자본을 가진 선진국들은 단순한 저임금 노동력만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기존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생산체계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즉 1970년대 경제침체 이후 서구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와 생산체계 및 기업체계의 혁신을 추동하면서 이른바 다품종소량 생산의 유연적 축적체제로 전환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과정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기존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즉 지구적 규모에서 전개되는 지역불균등발전은 개별 지역들의 재구조화 과정을 요청하며, 이러한 지구적 및 지방적 차원의 변화과정을 전제로, 특정 송출국에서 특정 유입국으로 국제이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지역 재구조화의 구체적 상황과 이주노동자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산업 재구조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저부가가치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퇴출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재구조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들 가운데 하나는 노동의 유연성이다. 즉 기존의 입지에서 자본은 임금 상승 압박과 조직된 노동의 저항에 봉착하게 되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다른 방법들, 예로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또는 자동화와 생산체계의 혁신을 추구하거나 또는 저렴하고 유순한 노동력의 다른 출처를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산업재구조화를 요구하는 지역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물론 개별 기업들이 재구조화의 압박에 직면하여 택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전략들에 비해 제도적으로 용이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즉 정부는 각종 규제제도를 완화하여, 조직된 노동의 협상력을 저해하고,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의 통제가 보다 용이한 비정규직종들이 양산되면서, 다양한 비/반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었다. 이 수요의 상당 부분은 국내에서 충족되지만,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국가가 외형적으로 합법화한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수요에 대해 국내 ‘산업예비군’보다도 더 기능적이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이미 보편화된 상황이다. 즉 “미등록 외국인 노동의 고용은 많은 사례들에서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한 조건이 되면서, 지속적인 [불법적] 이주에 있어 근본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창출하게 되었다”(Brochmann, 1993, 119-20; Overbeek, 2002에서 재인용).

끝으로 이러한 노동력의 국제이주가 가능하게 된 것은 국제이주를 감행하는 이주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나 지역의 주민들도 국제이주에 대해 점차 친숙해 졌기 때문이다. 국제이주자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고용기회가 부족한 자국 내에서 실업과 빈곤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기 보다는 몇 년 동안일지라도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신체적 및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이주를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나 지역에서도 기업체

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이들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완화시키게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은 이질적 인종과 문화의 혼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주민들의 노력, 즉 이른바 다문화주의적 담론과 실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다문화주의는 기업의 이해관계 실현과 자본 축적의 지속을 전제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원만한 수용을 위한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초국적기업의 문화적 논리’라고 주장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실제 전개되고 있는 인종적, 문화적 결합과 혼종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윤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Choi, 2008).

2)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입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주 노동자는 경제의 상이한 두 가지 상황, 즉 경제 호황뿐만 아니라 경제 침체와도 관련된다. 한편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경제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경제침체와 이에 따른 이윤을 하락에 직면하여 지역경제를 재구조화해야 할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하게 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산업의 재구조화에 직면한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선 자본의 업종 간 또는 지리적 이동을 강구할 수 있다. 물론 자본은 특정 장소의 특정 업종에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결과 이동이 어렵게 된다(Smith, 1984, 88). 그러나 자본주의는 사회공간적으로 평균 이상의 이윤율을 얻기 위해 새로운 제품의 생산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입지를 찾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 일반은 산업 간 임지 간 이동성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기존 업종이나 기존 장소는 주기적으로 폐쇄되고 새로운 업종, 새로운 장소가 선호된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이나 장소의 이전은 기존에 투입되었던 자본의 감가를 전제로 하며, 이러한 감가보다도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때 자본은 이동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구조화 접근은 자본이 보다 이동적이며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에 대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이 이러한 이동성을 활

용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결정적이지 않다. 이는 회사들이 이동불가능하게 된 물리적 자본의 기존 유형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는 방법, 그리고 부분적으로 노동의 반응에 좌우된다”(Lovering, 1989, 215-6). 특히 새로운 업종이나 장소로의 자본 이전과 이에 따른 새로운 투자는 또 다른 고정자본의 구축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본 이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Harvey, 1982)는 ‘공간적 조정’이 한편으로 유휴자본의 문제를 해소하지만 또한 동시에 추가적인 자본축적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새로운 업종이나 장소로의 이전을 통해 더 높은 이윤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면, 자본은 이러한 업종 전환이나 장소 이전 없더라도 존립할 수 있는 방안들, 즉 기존 업종의 생산설비를 자동화하고 생산체계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또는 좀 더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여 임금을 줄이거나 노동의 훈련 또는 재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체구조화에 직면하여, 지역경제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은 예로 박삼옥(Park, 1994)의 연구에 잘 설명되고 있다. 그는 1980년대 섬유 및 의류산업을 중심으로 서울 대도시권에서 산업체구조화의 주요 추동자와 그 결과를 고찰하면서, 임금 급등, 노동 쟁의, 환율 인하, 고이자율에 따른 고금융비용 그리고 취약한 재무구조 등이 지역산업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주요 추동자이며, 노동생산성의 증가율 둔화와 노동태도의 변화로 인한 생산적 노동자들의 부족 역시 중요한 추동자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또한 이러한 추동의 결과로 서울 대도시권에서 이루어진 산업체구조화가 생산체계 및 조직의 변화로 야기된 상이한 노동 수요로 인해 지역 노동시장 구조에 유의한 변화를 초래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산업체구조화 하에서 주요 기업들은 생산체계의 변화, 제품구조, 내수시장의 팽창, 하청과 유연적 전문화, 직업훈련,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등의 전략을 강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산업체구조화에 직면한 지역경제와 기업들이 다양한 전략들을 강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산업체구조화의 추동,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들의 쇠퇴에 직면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새롭게 도입할 수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있는 가능성은 간과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포드주의적 축적 체제가 성숙되면서, 노동력의 탈숙련화가 촉진되는 한편, 본사와 분공장 및 하청공장 간의 기능적 및 공간적 분화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노동력의 탈 숙련화에 조응하는 단순 노동력의 고용이 확대되었고 이때부터 해외 특히 동아시아 저개발국가들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또한 동시에 본사와 분공장 간 공간적 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설비는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급속히 증가시키게 되었다. 물론 해외 노동력의 유입은 단순 기능 인력보다는 전문 인력이 시기적으로 앞섰지만, 이들 간의 비율과 증가 추세로 보면 전자가 후자를 압도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산업 구조조정의 압박에 직면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었던 지역경제나 기업들에게 저렴한 노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 압박을 해소할 기회를 차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생산성, 생산체계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그림 1 참조).

물론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국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들의 특성과 지역의 경제여건, 그리고 분석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선진국들((특히 실업률이 높고 장기실업이 만연한 일부 유럽국가들)에서는 외국 인력의 유입으로 자국민의 실업이 증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종종

제기되지만, 실제 외국인력의 유입과 실업 사이에 명백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로 이민자 유입이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 Lalonde and Topel(1991), Altonji and Card(1991), Card (2001) 등은 이민의 유입이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Greenwood and Hunt(1995)는 생산구조상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내국인 근로자의 수요나 다양한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외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이거나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로, Dustmann et al.(2005)은 영국에서 이민이 총량적 고용, 참여, 실업 및 임금에 전면적 효과를 가진다는 확고한 증거(교육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Chang(2004)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이민은 단지 임금 격차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정도이고, 미숙련 임금의 하락에 유의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서술한다. 또한 Venturini and Villoso(2006)은 이탈리아에서 이주노동자는 노동시장에 보완적 효과를 가지며, 임금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반면, 실업의 증가는 이민에 의해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Carrasco et al.(2008)도 스페인에서 이민이 본국노동자의 고용률이나 임금에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 사례로서 Borjas(2003), Loghiet et 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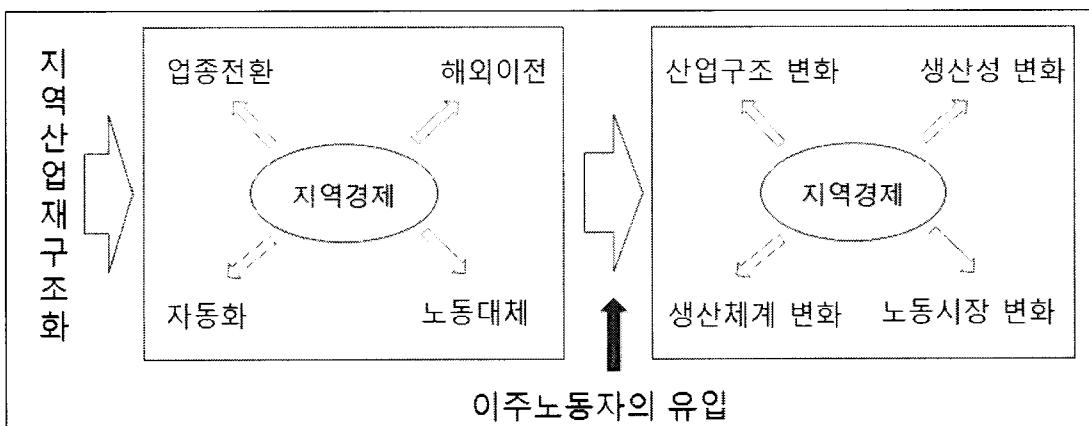


그림 1. 지역산업 재구조화와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5) 등의 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증가가 임금을 하락시키는 한편, 실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이규용 외, 2007).

국내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국내 노동력의 대체성과 보완성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예로,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 유입의 비교적 초기단계인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 부문 내국인 근로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한진희·최용석(2006)에 의하면, 산업연수생의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국내 남성 반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고용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이들은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점에 대한 유의한 통계자료를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조준모(2004)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근로자 간 대체성 및 보완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 업종별로 다소 다르긴 하지만 양자 간 대체성 보다는 보완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결론지웠다. 김홍배 등(2007)의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직접 국내 노동력을 대체하여 실업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한 이들의 저임금으로 인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생산액이 증대하여 간접적으로 국내 노동자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 즉 대체효과와 보완효과가 동시에 있음을 주장한다.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이러한 이중적 영향은 국내 경제의 시기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로, 이규용 등(2007)은 경기팽창과 부문별 인력부족 시기에 외국인근로자 유입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팽창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즉,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첫째 팽창하는 인력수요를 (특히 이러한 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때) 충족할 수 있으며, 둘째 단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국내 근로자의 계급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부가가치가 더 높은 부문으로 재배치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이들은 숙련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미숙련노동의 해외로부터 이주에 의해 증가한다는 것을 이론적 분석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숙련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고 관찰하고 있다¹⁾.

반면, 최근 경기 침체와 더불어 일부 업종에서 국내 고용을 대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로, 유경준(2008)은 2008년 심화되고 있는 고용 부진이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내수 부진, 그리고 고령화의 진전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과거의 추이에 의해 취업자 증가의 감소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은 이러한 요인들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다른 구조적 요인들, 즉 비정규법 시행의 파급효과와 외국인 근로자(방문취업제 포함)의 증가에 따른 국내 고용의 대체가능성을 추론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최근 건설업과 도소매 숙박업은 취업자 증가세와 둔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방문취업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집중된 업종이라는 점에서, 서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유경준, 2008, 15). 이규용·박성재(2008)의 분석 역시 방문취업제가 집중된 4개 업종 가운데 제조업과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고용 대체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 다른 측면은 생산성이다. 김현구·이규용(2004)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이 전체적으로 총산출을 증가시키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업종부터 외국인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한숙(2004)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생산성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이들의 고용을 제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최소한 단기적으로) 이주노동자는 지역 경제의 생산성에 가시적인 증가를 가져 올 것으로 추정된다. 김홍배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 업종별로 생산액 증가 효과가 큰 산업은 전기전자 일반기계업,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이고, 효과가 낮은 산업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가구및기타 제조업, 건설업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경상권의 생산액 증가 효과가 높았다는 점(전국 생산액 증가에서 각각 47.6%, 31.3%)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효과는 수도권과 경상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7).

이규용 외(2007)의 연구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유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산업 총산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 가구, 섬유기죽, 1차금속, 화학, 비금속업 등에서 높은 산업산출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산업산출이 증가하는 업종들은 외국인 노동력의 비중이 대체로 높거나 전반적으로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산업군에 속한다. 반면, 서비스업이나 숙련노동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산업은 외국인 노동력 증가에 따른 산업산출 증가 효과가 비교적 낮은 것을 나타났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의 고용은 동일 규모의 국내 노동력 수요 증가에 비해 GNP 상승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력은 소득 중 많은 부분을 자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소비활동이 동일한 국내 노동 수요의 증가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총지출면의 GNP 상승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요컨대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은 국가나 지역의 생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과급과정을 거쳐 수출, 자본, 임금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한 국내 노동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또 다른 방법들로 지역경제에 장기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²⁾. 즉 기존 산업들(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이주노동자의 고용에 따른 생산성의 증대는 해당 업종들의 재구조화를 위한 다른 방안들, 예로 생산설비의 자동화나 업종 전환 등을 위한 노력을 지연시킴으로써, 생산체계의 효율성 증대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저해하고 결국 지역 경제의 발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저임금과 유순한 노동력을 찾아서 유출되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어느 정도 둔화시키고, 이에 따라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억제하여 지역 내 노동력의 고용기회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위축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불확실하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의 노동시장, 생산성 및 산업구조와 생산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세부적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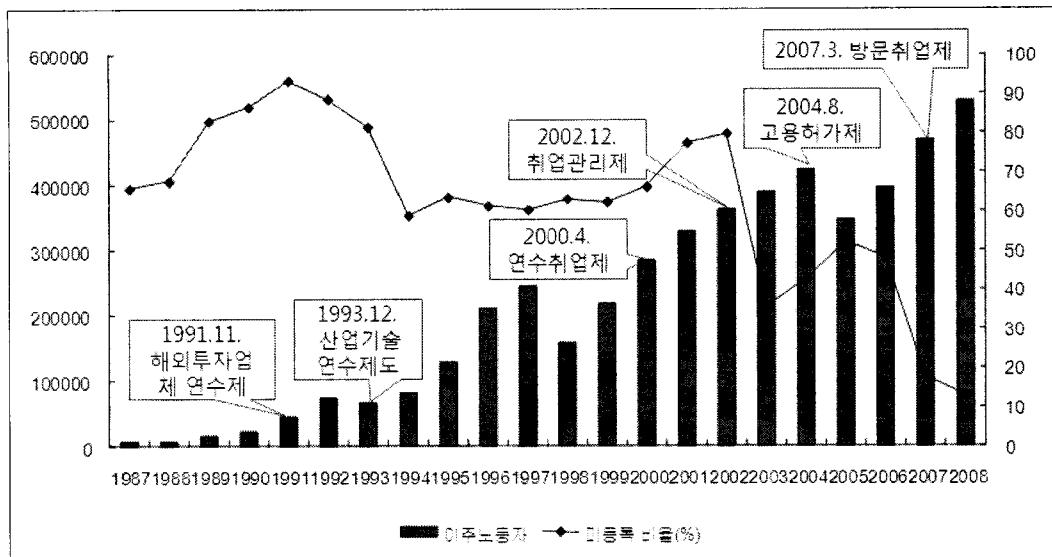
수 있으며, 어떠한 세부 항목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는 지역경제의 조건에 좌우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3. 이주노동자의 지역 분포와 지역적 조건

1)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지역분포 특성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로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무역수지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지만 선진국의 수입관세 등으로 인해 다시 적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 기업들은 내수시장을 위한 생산을 촉진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실질임금의 상승에 따른 구매력 증대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국내적으로 조응하게 됨에 따라 이른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를 성숙시키게 되었다(최병두, 2007). 그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성장은 단순기능 인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문직을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금지되었던 상황에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정부는 1991년 11월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 12월에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1995년 10만명, 1996년에는 20만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미등록 이주자의 비율도 다소 줄어들어 60%대를 유지하였다³⁾ (그림 2).

1997년 경제위기로 다소 주춤했던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2000년 4월 이주노동자가 일정기간 연수생으로 근무한 후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취업제가 시행되었고, 2002년 12월부터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취업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는 2001년 30만명, 2004년에는 40만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는 2003년 10월 합법화 조치로 그 비중이 3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단순기능적 노동자의 부족을 완화하고 이주노동자의 고용



자료: 2006년까지 이규용 외(2007); 2007,2008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해당연도

그림 2. 이주노동자 증감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비율의 변화 추이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고,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는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또한 2007년 3월 중국 및 러시아계 외국국적동포들을 위한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2008년 말 이주노동자의 수는 52.9만명으로 증가하게 되었고¹⁾,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제도 정비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말에는 12.8%로 줄어들었다.

이주노동자의 비자 유형을 보면(표 1), 2000년대 초반에 주류를 이루었던 산업연수생은 연수취업제

및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2008년에는 전체 이주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에 불과하게 되었다. 연수취업은 산업연수로 유입되어 연수생이 아니라 노동자의 신분으로 전환된 이주노동자들로 2000년 취업연수제의 도입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6년 약 7만명에 달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 산업연수생과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다. 비전문취업 비자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유입한 일반고용허가 이주노동자와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부여하는 고용특례허가에 따라 입국

표 1. 이주노동자 비자유형별 증가추이

(단위: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체류외국인(A)	491,324	566,835	629,006	678,687	750,647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이주노동자(B)	106,915	110,028	115,466	284,192	283,971	224,732	332,367	468,580	528,822
B/A(%)	21.8	19.4	18.4	41.9	37.8	30.1	36.5	44.0	45.6
유 형 별	산업연수(D-3)	104,847	100,344	96,857	95,676	66,147	55,154	59,806	25,903
	연수취업(E-8)	2,068	9,684	18,609	28,761	54,440	60,337	69,595	36,090
	비전문취업(E-9)	0	0	0	159,755	163,350	109,029	202,655	175,001
	선원취업(E-10)	0	0	0	0	34	212	311	2,900
	방문취업(H-2)	0	0	0	0	0	0	228,686	299,332
미등록노동자(C)	35,340	65,134	76,377	57,648	77,822	91,231	85,152	82,309	67,700
C/B(%)	33.1	59.2	66.2	20.3	27.4	40.6	25.6	17.6	12.8

자료: 법무부, 각 연도, 출입국 통계연보 및 통계월보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표 2. 고용허가 및 고용특례 업종별 현황

(단위: 명, %)

	2006		2007		2008	
	일반허가	특례허가	일반허가	특례허가	일반허가	특례허가
총 계	116,650		175,001 (23.4)		190,777 (18.0)	
합법화	-		34,190 (99.9)		24,358 (99.9)	
소 계	57,324	59,326	135,798(3.8)	5,013(33.6)	165,557 (5.5)	862(99.3)
제조업	56,355	7,571	124,815(3.9)	1059(12.3)	147,391 (5.2)	35(97.1)
건설업	128	19,879	6,054(0.4)	637(98.3)	9,009 (4.4)	326(99.7)
농축산업	766	539	3,543(6.0)	62(37.1)	6,778(10.7)	4(100.0)
서비스업	75	31,337	104(13.5)	3,255(53.8)	126(17.5)	1026(48.1)
어업	-	-	1,282(0.9)	-	2,253(1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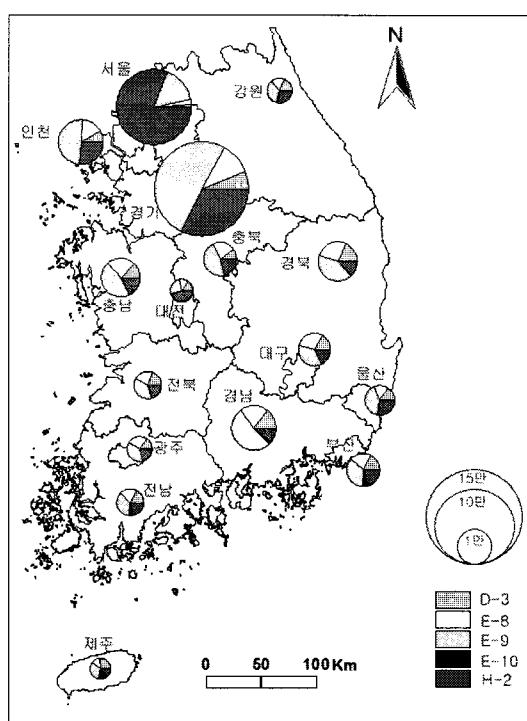
자료: 2006년, 이규용 외(2007); 2007 및 2008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해당년도.

주: ()은 미등록자 비율임

한 이주노동자로 구분된다.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는 제도의 시행 첫해 들어온 노동자들이 대거 귀국함에 따라 2005년 6만 명 정도 감소하였으나 그 다음 해인 2006년에는 20만 여명으로 증가하여 현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2007년 외국국적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취업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특례허가 이주노동자는 거의 전원 방문취업 이주노동자로 전환하여 크게 줄었다(현재 잔류인원은 거의 미등록자임). 끝으로 방문취업 이주노동자는 2007년 제도시행 첫해 이미 22.9만명에 달했고, 2008년에는 29.9만명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업종별 분포는 비자 상태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파악가능하다. 우선 산업연수생들은 대부분(2008년 91.3%) 해외투자, 중기협 추천으로 유입된 노동자들로, 2008년 섬유의복(19.0%), 조립금속기계장비(11.2%), 화학고무(9.4%) 등 여러 업종들에 종사하지만, 수산협, 건설협, 농협의 추천으로 유입될 경우 연근해어업, 건설업, 농축산업 고용에 한정된다. 연수취업생들도 업종별 분포에서 비슷한 유형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허가 및 고용특례에 따라 비전문 취업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업종은 대부분으로 파악가능하다(표 2). 2006년의 경우, 일반고용허가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98.3%)는 제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특례고용허가는 음식업, 청소업, 간병가사 등 서비스업에 52.8%가 취업하고 있으며, 건설업 33.5%, 제조업 12.8%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의 경우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특례고용허가 취업자들이 크게 줄었지만 일반고용허가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제조업 부문에 취업하는 이주노동자 수는 2006년에 비해 2.6배 증가하였고, 그 외 건설업 및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2007년 이후 방문취업자가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자료: 법무부, 2007, 내부자료

그림 3. 이주노동자의 지역별 분포

표 3. 지역별 이주노동자와 취업자 및 생산액 현황

지역	이주노동자		총생산(조원)		취업자(천명)			임금근로자(천명)		제조업취업자(천명)			
	2007	2008 (A)	2000	2007	2000	2008 (B)	A/B (%)	2000	2008 (C)	A/C (%)	2004	2008 (D)	A/2D* (%)
합계	397,665	519,378	577,971	806,397	21,156	22,139	2.35	13,360	16,206	3.20	4,177	3,963	6.55
서울	94,246	148,723	138,492	170,867	4,668	4,753	3.13	3,261	3,666	4.06	751	605	12.29
부산	10,869	13,338	33,840	43,894	1,632	1,610	0.83	1,112	1,145	1.16	301	287	2.32
대구	9,719	9,373	20,776	24,760	1,092	1,144	0.82	693	789	1.19	257	217	2.16
인천	26,890	31,470	26,231	36,917	1,100	1,179	2.67	779	937	3.36	329	327	4.81
광주	3,684	4,605	12,629	16,868	553	591	0.78	359	473	0.97	78	71	3.24
대전	2,199	2,813	13,559	17,483	579	639	0.44	395	514	0.55	79	80	1.76
울산	7,056	9,357	28,355	39,987	437	476	1.97	330	408	2.29	178	179	2.61
경기	153,678	187,869	111,793	182,983	4,058	4,622	4.06	2,843	4,043	4.65	1,090	1,077	8.72
강원	3,631	4,659	16,462	20,595	668	665	0.70	356	407	1.14	46	46	5.06
충북	10,943	13,137	19,521	26,384	665	668	1.97	366	442	2.97	122	129	5.09
충남	17,388	20,847	28,963	48,215	891	902	2.31	432	582	3.58	152	169	6.17
전북	5,680	6,773	18,978	24,606	843	837	2.27	435	464	1.46	110	97	3.49
전남	5,389	9,432	26,908	33,401	981	958	0.98	412	441	2.14	80	80	5.90
경북	18,339	19,684	38,446	59,794	1,367	1,370	1.44	664	747	2.64	255	214	4.60
경남	26,664	35,347	37,728	52,693	1,360	1,445	2.45	776	972	3.64	338	375	4.71
제주	1,290	1,951	5,289	6,949	261	281	0.69	148	178	1.10	11	9	10.8

자료: 이주노동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그 외 통계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 * 비전문취업자의 유형에서 제조업취업자가 50%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도 50%로 추정하여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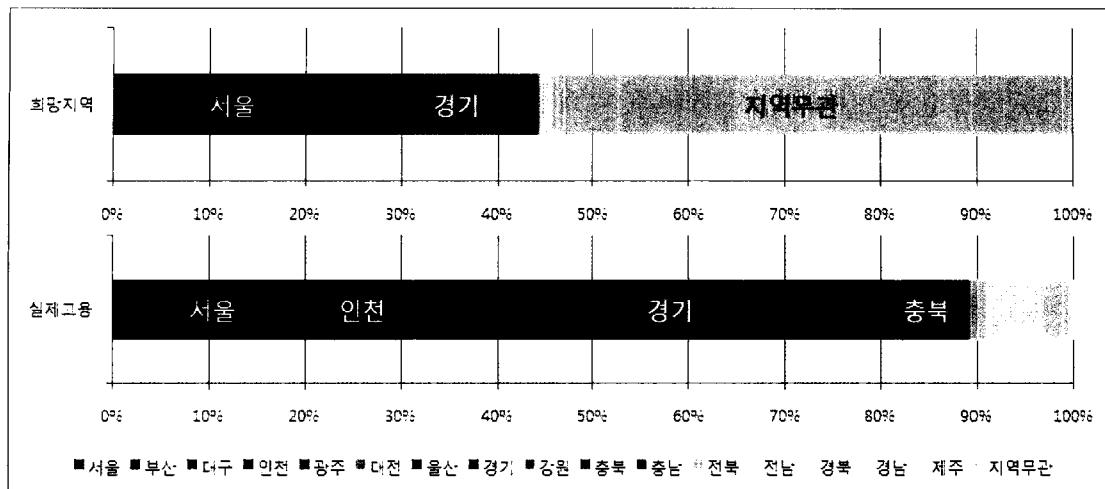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들의 업종별 분포는 잘 파악되지 않고 있다⁵⁾.

이주노동자의 지역별 분포는 2008년의 경우 시군구별로 공개되었지만, 그 이전의 경우는 법무부의 내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07년 10월 자료에 의하면(그림 3, 표 3), 전체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69.1%가 서울(23.7%), 인천(6.8%), 경기(38.6%) 등 수도권에 집중 분포해 있었고, 그 외 경남 6.7%, 경북 4.6%, 충남 4.05, 부산 2.7%의 순으로 분포해 있었다. 비자상태별로 보면, 산업연수생들은 서울과 인천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경기에는 29.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및 경북의 순으로 분포한다. 경기도의 경우, 연수취업뿐만 아니라 비전문취업자들의 집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각각 33.9%, 49.0%). 2008년의 경우도 이주노동자들은 서울(28.6%), 인천(6.1), 경기(36.2%) 등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 70.9%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방문취업 이주자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46.8%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

다.

이주노동자들의 이러한 지역별 분포는 상당 부분 당사자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지역과는 다소 다르거나 또는 당사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즉 스스로 지역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로, 2006년 일반고용허가 및 특례고용허가로 들어온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전체에서 24.9%는 서울, 12.0%는 경기에 취업하기를 희망했고, 취업지역의 선택을 포기한 사람(즉 지역무관)이 절반 이상(53.3%)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4). 특히 일반취업허가자들의 경우 지역무관의 비율이 전체의 89.3%에 달했다. 이러한 취업희망지역과 실제 고용지역을 비교해 보면, 서울, 대구, 울산(그리고 지역무관의 비례 배분을 고려할 경우,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는 희망자들을 수용하지 못한 반면, 인천, 경기의 수도권과 이에 인접한 충북 그리고 경북, 경남 등은 희망자들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 이규용 외, 2007에 근거함.

그림 4. 고용허가제 취업자 희망지역 및 지역별 외국인력 고용업체 분포 현황(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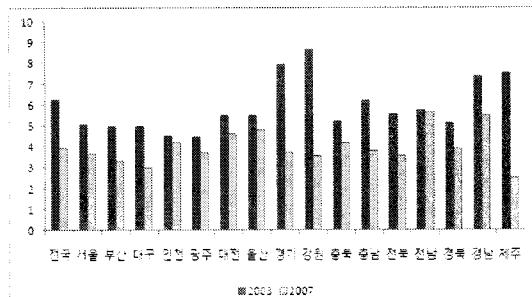
2) 이주노동자 유입의 지역적 조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경제위기를 점차 벗어나면서 위기 이전과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연평균 4%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총생산은 2000년 578조원에서 2007년에는 806조원(2000년 기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내 총생산과 증가율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로, 각 지역 생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4.0%, 19.3%였으며, 2007년에는 각각 21.2%, 22.7%였다(표 3). 이 기간 중 경기도가 서울을 앞서게 되었으며, 수도권(인천 포함)의 생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5.0%에서 46.6%로 증가하여 집중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 기간 동안 지역총생산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북과 경남 그리고 충남지역이었다.

2000년 이후 수도권으로의 집중 심화를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지역경제의 변화는 지역별 취업자의 증감 추이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2000년 우리나라 총취업자수는 2,116만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이 22.1%, 경기도에 19.2%가 입지해 있었고, 인천을 합쳐 수도권 지역의 취업자수는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또한 2008년에는 총취업자 가운데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9%로 약간 줄었지만,

23.5%로 크게 증가하여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49.8%를 차지하여 집중도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취업자를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00년 63.1%에서 2008년에는 68.7%로 증가하여, 경영자 및 자영업자들이 감소하고 자본주의적 임노동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임금근로자는 2000년 서울 및 경기도에 각각 24.4%, 21.3% 입지해 있었으나, 2008년에는 노동력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서울 22.6%, 경기도 24.9%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2000년 이후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체의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제조업 취업자수는 2000년 이후 절대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9%에 불과하게 되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08년 경기도 27.2%, 경남 9.5% 입지해 있으며,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3%로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지만, 전체 취업자의 비율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로, 대도시 서비스업 취업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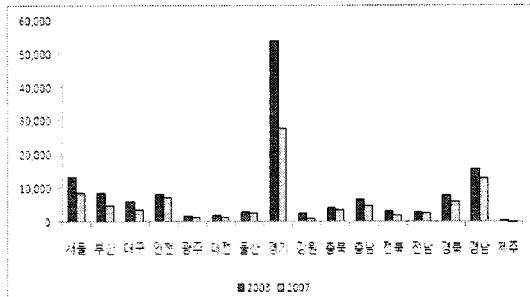
이주노동자의 지역별 분포는 우선 지역의 생산액 및 취업자수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노동시장, 특히 노동력의 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경제성장과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특히 학력



자료: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2003, 2007

그림 5. 지역별 인력부족률 변화(%)

의 향상은 노동집약적 업종들이 노동시장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의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에 의



자료: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2003, 2007

그림 6. 지역별 부족 인력수의 변화(명)

하면⁶⁾,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인력 부족률은 2003년 6.23%(조사업체들의 합계로 13.9만명)였고, 그 이후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으로 2007년에는

표 4. 지역별 인력부족 현상 타개 대책

구분	2003					2007					기타	
	이전	자동화	사업 전환	인력 확충		기타	이전	자동화	사업 전환	인력 확충		
				외국인력	국내인력					외국인력	국내인력	
전국	2.8	35.9	6.3	18.7	11.2	25.1	8.3	39.0	8.4	12.1	23.3	11.2
서울	4.4	22.5	5.8	9.9	15.0	42.4	8.6	38.0	8.6	5.8	20.0	13.0
부산	2.6	43.5	5.6	8.7	11.3	28.2	13.4	36.7	12.2	9.8	19.0	8.9
대구	0.5	37.9	10.4	14.4	16.1	20.8	10.4	36.3	13.3	10.0	18.8	6.2
인천	2.7	37.6	8.1	16.5	11.9	23.3	4.6	25.0	4.8	16.5	22.7	13.4
광주	3.2	30.9	5.2	17.4	9.9	34.4	6.7	58.3	18.5	13.2	27.0	5.2
대전	1.5	45.4	7.0	12.8	10.8	22.4	15.7	43.8	9.0	13.2	24.1	6.1
울산	3.8	40.9	5.4	20.9	6.1	23.0	7.9	34.5	7.3	16.2	36.1	2.8
경기	3.0	37.2	6.9	24.6	9.2	19.1	8.6	41.2	8.0	10.6	21.6	12.2
강원	0.9	37.6	5.4	18.4	13.7	23.8	2.8	44.7	7.7	8.9	25.4	9.7
충북	2.1	46.4	3.3	22.7	10.6	14.9	3.9	37.4	6.3	15.6	28.2	8.9
충남	4.2	39.0	2.5	28.5	7.4	18.4	5.5	45.0	5.4	26.5	32.2	3.5
전북	2.8	42.3	4.7	13.7	17.7	18.8	4.5	43.6	5.6	10.6	27.2	8.7
전남	0.6	40.3	3.0	26.9	5.8	23.4	5.2	49.8	8.6	18.8	34.6	4.8
경북	1.2	38.8	5.5	31.0	9.5	14.9	6.8	39.9	7.3	26.6	30.5	8.0
경남	1.8	38.8	5.5	21.5	8.9	23.4	9.4	39.0	7.0	17.2	26.7	8.2
제주	0.0	46.6	6.6	16.5	10.8	19.5	6.6	35.8	8.9	12.0	26.8	9.6

자료: 중소기업청 및 산업연구원, 2003, 2007,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

주: 제시된 설문 응답항목이 연도에 따라 약간 다름. 2003년에 단수응답으로, 이전은 해외이전만, 자동화는 생산설비 자동화만 제시되었고 인력활용은 외국인력과 여성인력으로 구분되었음. 2007년에는 2개 복수응답(단 합계가 정확히 200이 아님)으로, 이전의 경우 해외이전과 국내타지역 이전, 자동화는 생산설비 자동화와 사무자동화, 인력활용은 외국인력, 여성인력, 실버인력, 병역대체인력으로 구분되었음.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93%(약 9만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러한 인력부족 상황을 지역별로 보면(그림 5, 6), 2003년의 경우 경기, 경남, 서울의 순으로 부족인력의 절대 수가 많았고, 부족률로는 강원도, 경기, 제주, 경남 순으로,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부족인원의 절대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지만, 부족률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은 2007년 상당 정도 완화되었는데, 특히 경기도는 부족률이 2003년 7.94에서 2008년 3.67로 낮아졌고, 강원과 제주도 각각 2003년 8.67, 7.49에서 2007년 3.54, 2.49로 낮아졌다. 반면 경남과 전남은 다소 줄었지만 다른 지역들보다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화 및 외국 및 국내(여성, 실버, 병역대체)에서 인력 충원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이나 신규사업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관심을 보였다. 즉 2003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중소기업들 가운데 자동화 및 국내외 인력확충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비율은 각각 35.9%, 29.9%인 반면, 해외이전 2.8%, 사업전환은 6.3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은 다소 심화되어 2007년 자동화가 39.0%, 국내외 인력 확충이 35.4%로 증가하였다(인력확충에서 외국인력의 비율은 줄고 국내 인력의 비율은 증가했

음). 이러한 점은 기업들이 인력부족 등으로 요구되는 산업체구조화 과정에서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이나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 즉 기업의 자리적 또는 산업적 이전을 택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생산설비를 자동화시키거나 보다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여 기존의 업종과 입지를 고수하고자 하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타개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그림 7, 8), 2003년 서울의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자동화나 외국인력의 확충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여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부산, 대전, 울산과 같은 대도시와 충북, 전북, 전남, 제주와 같이 상대적으로 생산액이 적은 지역들에서는 자동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서울은 자동화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였지만, 외국인력에 대한 선호는 더욱 낮아졌고, 인천은 자동화에 대한 선호는 크게 줄었고, 외국인력에 대한 선호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부산과 대구는 자동화 선호가 감소한 반면, 광주는 크게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도지역에서도 자동화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반면, 외국인력에 대한 선호는 다소 줄었다.

4.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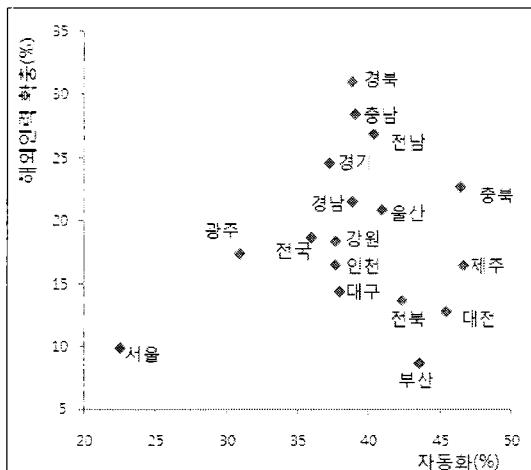


그림 7. 인력부족타개 대책으로서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해외인력 확충(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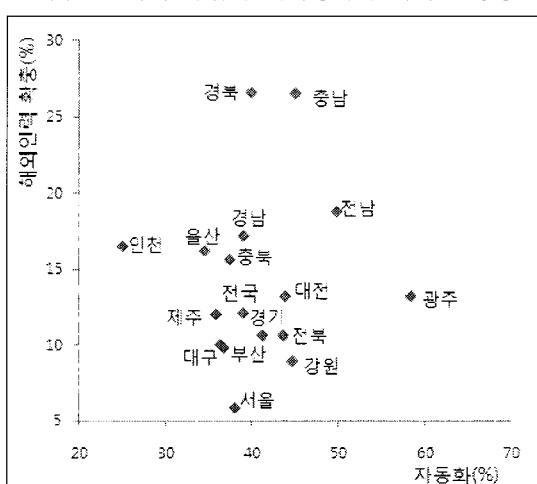


그림 8. 인력부족타개 대책으로서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해외인력 확충(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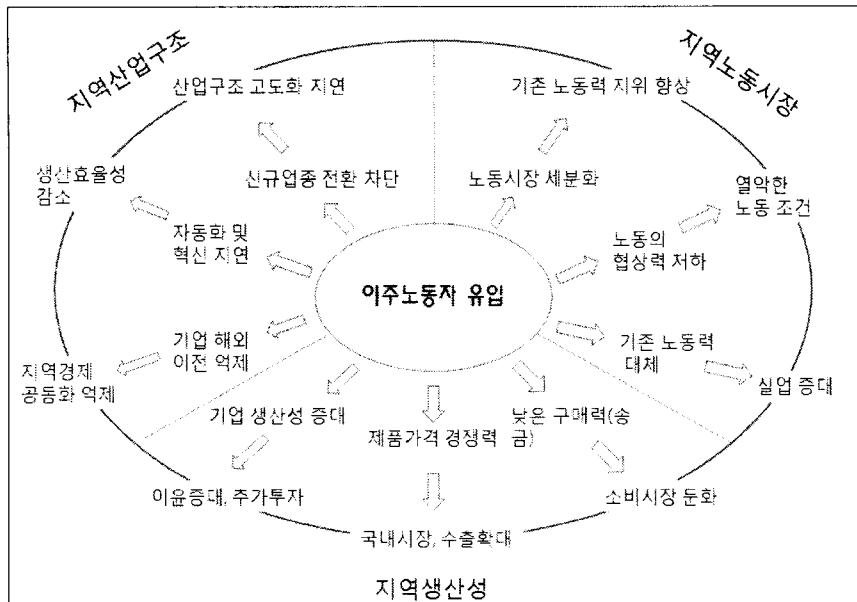


그림 9.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가설

매우 복잡한 모형을 이용하거나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Okkerse, 2008),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파악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첫째 관련 통계자료에 절대적 한계가 있으며, 둘째 복잡한 모형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국 수리적(또는 기계적) 관계에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고, 셋째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미치는 영향은 지역경제의 조건이나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연구들의 결과와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주장들에 기초하여 몇 가지 가설들을 설정하고, 관련 변수들 간의 간단한 상관관계에 바탕을 둔 논리적 추론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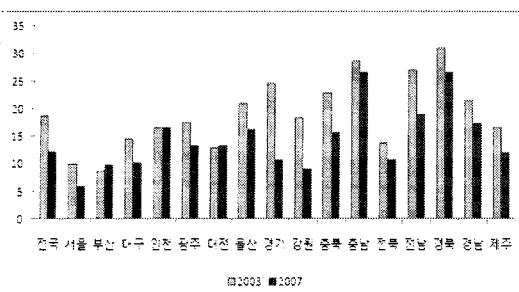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열거된다(그림 9). 첫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노동시장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 노동력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보완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내 단순 노동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노동의 협상력 저하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임금 절감에 따른 제품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단기적으로 지역생산성의 증대 효과를

가지지만,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유지해야하는 문제점을 가지며, 또한 이들의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 소비시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산업구조화를 통한 신규 업종으로의 전환이나 생산설비의 자동화 및 혁신을 차단시켜서 지역 산업체의 고도화를 저연시키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해외이전을 억제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막아 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제시될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러한 가설들 대부분은 채택될 수 있으며, 두 가지 사항은 불확실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첫째 이주 노동자의 유입과 생산설비의 자동화 간 관계로, 중소기업들은 자동화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지만 이주 노동자의 유입으로 실제 자동화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 둘째 이주 노동자의 유입과 해외직접투자 간에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다.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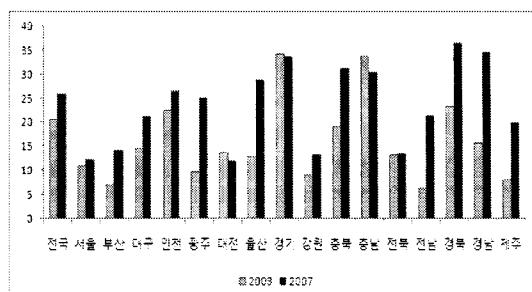
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지역의 노동시장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역 노동시장의 보호를 위해 단순 인력의 도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2003, 2007

그림 10. 인력부족 대책으로 외국인력의 확충을 원하는 기업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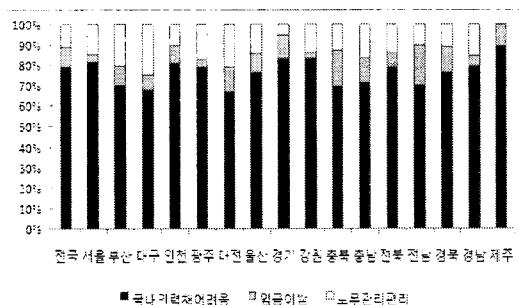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2003, 2007

그림 11. 실제 지역별 외국인력 고용업체의 비율 변화 (%)

입에서는 국내 노동 공급과의 보완성을 전제로 한다. 즉 기업이 국내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생산 활동이 어렵거나 또는 노동력의 임금 인상이나 강력한 노동(조합)운동 등으로 인해 저렴하고 유순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경우, 국가는 일정한 제약 조약 하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화와 국내외 인력 확충을 선호하고 있다. 해외 인력의 확충을 통한 대책 마련은 2003년에 비해 2007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그림 10), 실제 중소기업들 가운데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들은 2003년 20.5%에 비해 2007년 25.7%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에서 나타나며, 특히 울산, 전남북, 경남북 지역에서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졌다(그림 11). 또한 경기에서도 해외인력 확충 대책을 선호하는 기업의 비율은 크게 감소했으나 실제 외국인력 고용업체는 30%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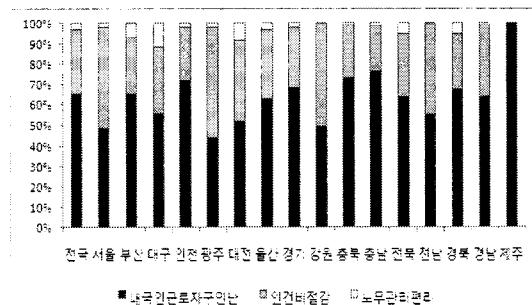
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국내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에 기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의 저렴한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이 증가한 것은 내국인 노동자의 취업 기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임금이나 노무관리의 용이성 때문인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실 국내 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한다는 것은 기업이 자신들이 원하는 낮은 수준에서 국내 인력을 구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만약 임금을 현재보다 높게 제시할 경우에도 여전히 인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정진화, 2005). 이러한 점은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의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의 응답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그림 12, 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3년 외국인력 고용의 주된 원인으로 고용업체들 가운데 79.1%가 국내인력채용의 어려움, 그리고 9.9%만이 저렴한 임



자료: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2003, 2007

그림 12. 지역별 외국인력 고용이유(2003)



자료: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2003, 2007

그림 13. 지역별 외국인력 고용이유(2007)

표 6. 내국인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단위: 개소, %

업 종	사례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임금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크게 대체	부분 대체	영향 없음	약간 보호	크게 보호	크게 악화	다소 악화	영향 없음	다소 향상	크게 향상
전체	322	20.2	53.1	24.5	1.6	0.6	1.9	12.7	75.5	8.4	1.6
기계	41	19.5	53.7	24.4	1.4	0	2.4	14.6	65.9	17.1	0
금속	137	17.5	56.2	24.8	2.4	0.7	0.0	13.9	73.7	10.2	2.2
화학	77	24.7	46.8	24.7	0.7	0	1.3	6.5	84.4	7.8	0
전기전자	30	23.3	56.7	20.0	3.9	0	6.7	6.7	80.0	0	6.7
기타	37	18.9	51.4	27.0	0	2.7	5.4	24.3	70.3	0	0

자료: 한국여성정책개발원 (2007).

금을 지적했으나, 2007년에는 내국인 근로자 구인란은 65.6%로 줄어든 반면, 인건비 절감이 31.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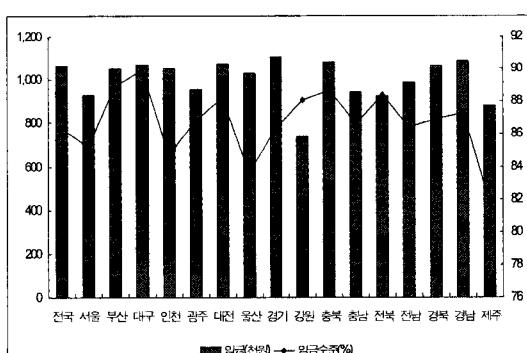
이러한 변화를 지역별로 보면,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의 비율은 서울(2003년 3.8%에서 2007년 48.9%), 광주(3.7%에서 54.1%), 강원(3.5%에서 50.4%) 등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부산, 인천, 경기, 충남북, 제주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했다. 이와 같이 2003년의 경우 중소기업들은 국내인력채용의 어려움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선호함으로써, 국내 노동력을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내국인 근로자

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여성정책개발원의 조사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표 6). 이 조사에 의하면,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제조업부문에서 이주노동자의 고용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20.2%) 또는 부분 대체(53.1%)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한편, 이 조사에 의하면, 이주노동자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 없음'이 75.5%로 나타났고, 악화되었다고 하는 비율이 14.6%이지만, 또한 향상되었다고 하는 비율도 10.0%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기존 노동력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국내 노동자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내국인 노동자 임금의 86~89% 수준이다(그림 14). 이주노동자의 이러한 임금수준은 노동시간 연장 등을 고려해 볼 때, 내국인 노동자들 보다 실제 매우 열악하다. 또한 이들의 임금은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서울은 임금의 절대액수 및 수준도 전국 평균 이하이며, 경기도는 가장 높은 임금액을 보이지만 임금 수준은 전국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는 임금액수와 임금수준에서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임금액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가 국내 저임금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임금 역시 낮은 수준에서, 이주노동자가 지역 내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약하지만, 장기적으로



자료: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2003, 2007

그림 14. 이주노동자의 임금 및 임금수준(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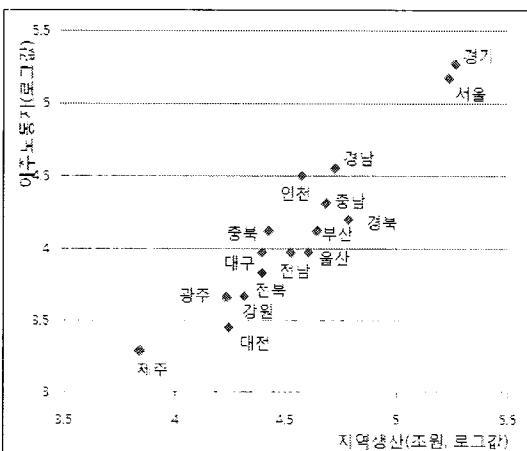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는 점차 이중적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차상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장의 세분화를 통해 지위를 다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는 저임금 단순 노동력을 대체하여 결국 실업이나 비정규직 고용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노동력의 풀(즉 산업예비군)을 확대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는 단기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처럼 인식된다고 할지라도(표 6), 장기적으로

보면 노사관계에서 노동의 협상력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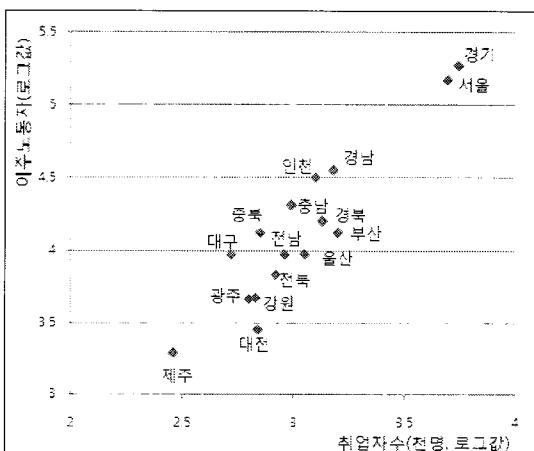
2) 지역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주노동자가 지역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국내 노동력의 대체성 보다는 보완성이 더 크다면, 이들은 분명 지역경제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하겠다. 물론 지역 생산성의 증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촉진된 점도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유입



주: <표 3> 자료에 근거함

그림 15. 지역생산과 이주노동자 간 관계(2008)



주: <표 3> 자료에 근거함

그림 16. 취업자와 이주노동자 간 관계(2008)

표 7. 외국인 노동자 10% 고용 증가에 따른 생산액 증가

(단위: 십억원, %)

구 분	총생산 액증가	상위산업						하위산업					
		업종	증가	업종	증가	업종	증가	업종	증가	업종	증가	업종	증가
전국	3,090.4 (100.0)	전기전 자기계	755.9	1차 금속업	453.1	화학 제품	421.4	도소매 음숙박	56.8	가구및 기타	25.4	건설업	15.8
수도권	1,469.4 (47.6)	전기전 자기계	411.7 (54.5)	1차 금속업	187.6 (41.4)	화학 제품	178.3 (42.3)	도소매 음숙박	26.0 (45.9)	가구및 기타	13.5 (53.4)	건설업	8.2 (51.4)
강원권	68.9 (2.2)	농림 수산업	21.4 (6.8)	석유 석탄업	9.8 (6.7)	전기전 자기계	8.2 (1.1)	건설업	0.8 (5.1)	종이인 쇄출판	0.7 (0.7)	가구및 기타	0.2 (0.9)
충청권	268.2 (8.7)	전기전 자기계	64.2 (8.5)	화학 제품	44.8 (10.6)	농림 수산업	44.0 (14.0)	도소매 음숙박	4.4 (8.0)	가구및 기타	2.6 (5.5)	건설업	1.6 (7.2)
전라권	318.2 (10.3)	화학 제품	62.5 (14.9)	1차 금속업	61.0 (13.5)	농림 수산업	50.6 (16.1)	금속 제품	4.4 (5.9)	가구및 기타	2.6 (10.0)	건설업	1.6 (10.1)
경상권	965.8 (31.3)	전기전 자기계	235.9 (31.2)	1차 금속업	183.4 (40.5)	화학 제품	131.3 (31.2)	가구및 기타	7.7 (30.1)	비금속 광물	7.3 (12.6)	건설업	4.1 (26.1)

자료: 김홍배 외, 2007, 14-15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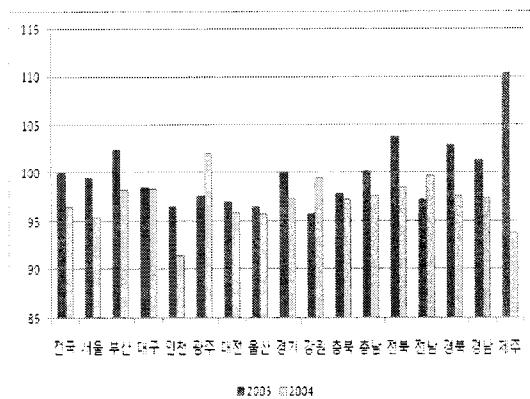
은 다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생산액 증가와 국내 노동력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김홍배 외, 2007). 이러한 점은 지역경제의 생산액이 이주노동자의 유입 규모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즉 <그림 15, 1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생산액, 취업자, 임금 노동자의 수가 클수록, 이주노동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간의 상관계수로 보면, 이주노동자의 수는 지역생산액, 취업자, 임금노동자 또는 제조업 종사자 수 등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지역생산액과 더 높은 비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김홍배 등(2007)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10% 증가할 경우, 전체 생산액 증가 효과는 2003년 기준 생산액의 0.22%에 해당하는 3조 9백억원, 전국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7백억원, 국내 노동자 고용효과는 16,130명(2003년 현재 국내노동자 고용인구의 약 0.12%)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따라 생산액 증가가 가장 큰 지역은 수도권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상권 31.3%, 전라권, 충청권의 순으로 되어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기계업종의 생산액 증가율이 높은 반면, 도소매업과 가구 및 기타, 그리고 건설업은 생산액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으로 분석되었다(표 7). 이러한 추정은 물론 일정한 가정 하에서 계산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자의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특히 지역별 및 업종별 상위산업과

하위산업을 제시함으로써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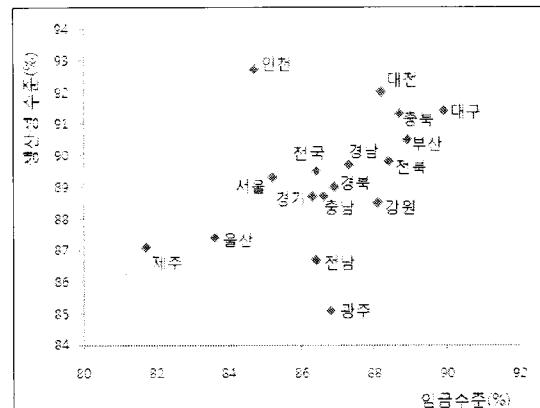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생산액 증대 효과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노동력이 국내 노동자의 생산성과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이주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다면, 국내의 단순 기능 노동력에 비해 저렴한 노동가격을 형성하므로 생산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저렴한 임금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에서 수출산업의 신장은 이차적으로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규용 외, 2007).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생산성 수준 보다 높아지면, 국내 노동자와 비교하여 지역 생산에 절대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3년 전국 이주노동자 생산성 수준(87.2%) 대비 임금 수준(87.1%)은 99.9%로,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싸다고 할지라도 생산성 수준이 그 만큼 낮다면 실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2004년 이주노동자 고용 기업들은 임금수준(86.4%)을 낮추는 한편 생산성 수준(89.5%)을 높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2003년의 경우 생산성 수준 대비 임금 수준의 비율은 제주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 경기, 전북, 경남북에서 100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2004년에는 광주(102.0)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들은 100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점은 그러나 어떤 딜레마를 초래하게



자료: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2003, 2004.

그림 17. 이주노동자의 생산성 대비 임금 수준(%)



자료: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2004.

그림 18. 이주노동자의 생산성 및 임금 수준(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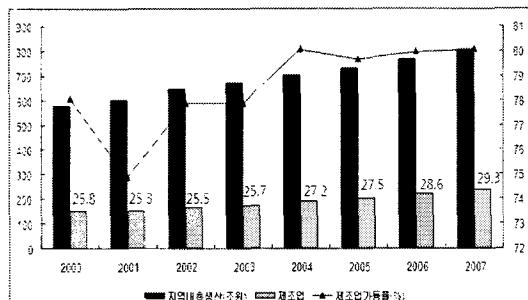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된다. 즉 정진화(2005)의 연구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만약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가 생산성 대비 임금이 낮기 때문이라면, 외국인 근로자의 이러한 비교우위가 지속되는 한 외국 인력의 국내 인력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주노동자가 지역의 생산성과 관련하여 흔히 지적되는 또 다른 점은 이들이 지역 소비시장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함으로써 생산의 증가 효과를 가져오고 기업들에게 이윤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기업들의 추가투자를 가능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저임금은 소비를 위한 구매력을 낮추게 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의 상당 부분을 자국에 송금하는 한편, 소비 지출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 시장에서 수요 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이규용 외, 2007).

3) 산업구성 및 생산체계에 미치는 영향

이주노동자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측면들 가운데 하나는 지역의 산업구성 변화와 생산체계이다. 이 측면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의 산업 재구조화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흔히 간과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산업 재구조화 과정에 내재된 ‘공간적 조정’의 문제, 즉 기존의 업종들이 가지는 ‘입지관성’(입지 및 업종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회피)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설비와 기계 등의 고정자본에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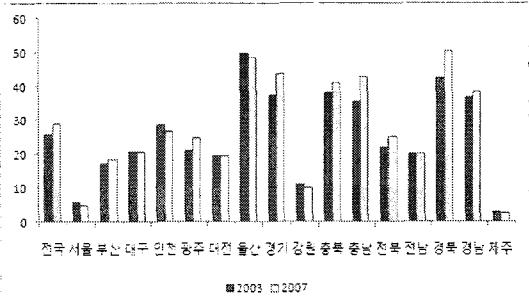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그림 19. 제조업 성장(구성비) 및 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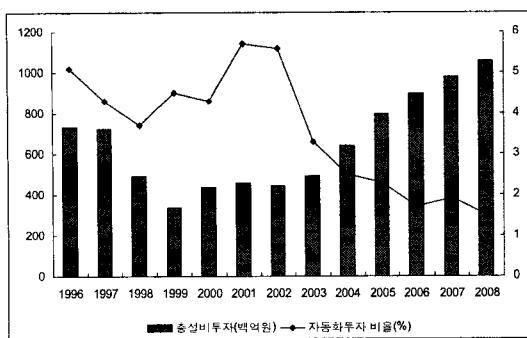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산업구성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에 달한 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 경향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인 첨단기술산업 및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의 전국 산업구성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생산액 기준)은 2001년 25.3%로 최저점에 도달한 후 다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29.3%에 달하게 되었다(그림 19). 뿐만 아니라 제조업 가동률은 IMF 위기 직후인 67.8%로 최저에 달한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74.9%)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7년에는 80.1%를 보였다(그러나 2008년에는 다시 약간 하락하여 77.2%). 지역별로 보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서울과 인천의 경우는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에 따른 첨단기술서비스업과 금융,보험 및 여타 경영관리 및 자문 등의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달로 제조업의 구성비가 감소하였지만, 그 외 강원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들에서 제조업 생산액의 구성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0).

이와 같이 제조업 구성비가 증가하고 또한 가동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인들의 작용 결과라고 하겠지만, 이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주노동자들은 제조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업종들에 주로 고용됨으로써 기존에 재구조화되어야 할 업종들이 높은 가동률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지역에서 노동집약적이고 노후화된 업종들에서 요구되는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에 기여하는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그림 20. 지역별 제조업(생산액) 구성비 변화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그림 21. 총설비투자 및 자동화투자 비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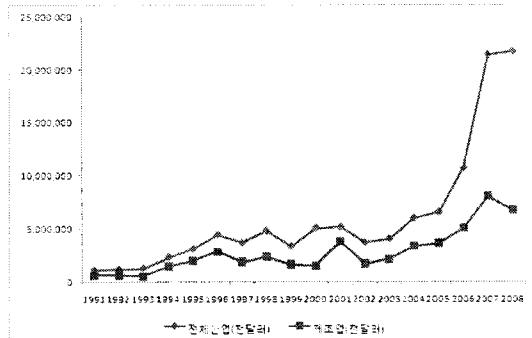
한편, 새로운 신규업종으로의 전환을 자연시키고,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생산설비의 자동화나 생산체계의 혁신에 대해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생산설비 투자가 증대하면서, 혁신기술의 발달로 설비 자동화 및 제품의 혁신 등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전까지 총설비투자는 대체로 연간 7조원을 상회했지만, IMF 위기와 더불어 투자액이 크게 줄어들어 1999년에는 3.4조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설비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8조 원에 육박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총설비투자에서 자동화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3.7%에서 점차 높아져 2001년 5.7%에 달한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8년에는 1.5%로 추락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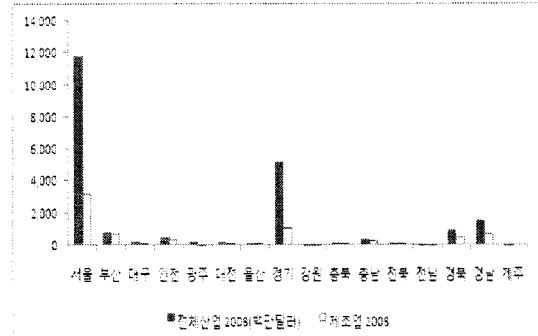
자동화투자에 대한 비율의 감소를 초래한 여러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라고 추정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자동화의 추진 간에는 상호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화 추진은 상대적으로 노동력 투입을 축소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설비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제조업 가동률도 증가하는 추세에서, 자동화 부문에 대한 투자만 감소한다는 것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 요인이 바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라고 추정된다. 즉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생산설비의 자동화와 혁신을 자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측면으로 해외직접투자의 변동 추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주요 요인으로 상품시장의 확보나 새로운 기술의 습득 등을 들 수도 있겠지만, 저렴한 노동력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199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지만 1997년 IMF 위기 이후 다소 감소한 후 약간 증가하다가 2002년에 다시 감소했지만, 그 이후에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22). 즉 2003년 해외직접투자액은 46.7억 달러였으나 2006년 114.8억 달러에 달했고, 2007년에는 214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해외직접투자 유출을 억제하여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그림 22. 해외직접투자 증감추이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그림 23.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⁸⁾. 특히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의 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는 지방의 중소기업들보다는 본사 또는 투자자가 위치한 서울에서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에서(그림 23), 지역의 이주노동자 유입과는 직접적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이들의 고용은 지역경제의 호황기뿐만 아니라 침체기에 지역 산업의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으로 공장을 가동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 타개하고, 최소한 단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실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매우 복잡하고, 이중적(또는 다중적)이다. 특히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고, 정교한 모형이 결여된 상황에서 그 영향을 추정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지만, 이주노동자가 지역경제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본격화되었고, 2000년에 들어와서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 분포하면서,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확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주장을 검토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관련된 지역경제의 조건 및 이에 따라 변화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측면들, 즉 지역노동시장, 지역 생산성, 그리고 지역의 산업구성 및 생산체계의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그 영향을 추론하고자 했다. 다소 피상적인 추론을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본 연구의 추론으로 도출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반적

으로 국내의 단순 노동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며, 한편으로 노동시장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 노동력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노동의 협상력 저하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증대 효과를 가지지만,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유지해야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이들의 낮은 구매력은 소비시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산업재구조화를 통한 신규 업종으로의 전환이나 생산설비의 자동화 및 혁신을 차단시켜서 지역 산업구성의 고도화를 자연시키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해외직접투자와는 큰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해외이전에 따른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막아 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주

- 특히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후자의 현상은 사회적 사다리의 밑 부분에서의 활동들은 매우 매력적이지 못하며, 만성적 인력 부족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우게 된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양적 유연성을 불어넣음으로써, 시장이 단지 팽창할 뿐만 아니라 세분화(또는 계층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이규용 외, 2007, 10).
- 이주노동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외에도 공공재정 부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규용 외(200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공재정부문은 외국인 근로자의 납세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발생하는 추가 공공지출로 인해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다.
- 이 논문에서 이주노동자란 법무부의 분류에 의한 단순기능인력, 즉 비전문취업(E-9), 연수취업(E-8),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과 산업연수(D-3)를 포함하며, 단기취업(C-4) 및 취업관리(F-14)(2008년 말 현재 각각 857명 1436명)는 제외했다. 이러한 단순 이주노동자는 법무부의 분류에서 전문인력, 즉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과는 구분되며(2008년 말 합계 32,473명) 또한 예술홍행(E-6)(2008년 말 4,831명)과도 구분하여 포함시키지 않았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의하면, 본 논문에서 (단순)이주노동자의 유형에서 제외된 전문직 종사자수는 2008년 32,473명이며 이 가운데 미등록 체류자수는 678명(2.1%)이고, 또한 예술홍행 체류자는 4831명이며, 미등록체류자는 1398명(28.9%)이다. 이주노동자의 수는 포함하는 세부유형이나 계산 방식(예로 누적수 또는 당해연도 입국자 수 등)에 따라 다소 다르게 집계되고 있다. 예로, 이규용, 박성재(2008)

- 는 2008년 7월 취업근로자 수가 약 70만 여명이며, 불법체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 5) 이주노동자의 지역별 및 업종별 분포는 업종과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방문취업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미등록체류자를 고려할 경우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규용·박성재(2008)는 전체 외국 인력의 약 25%만 업종별 분포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6)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는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업체(2003년 제조업체만 8702개, 2007년 제조업 및 서비스업 10,000개)를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현황 및 부족 인력, 교육인력,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시도별 자치단체의 산업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7) 최근에 오면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 노동력을 대체함으로써 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로 추정해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 8) 그러나 심상완(2008)의 연구에 의하면, 해외투자와 생산의 해외전개가 창원지역 수준에서 제조업 생산의 위축이나 산업공동화를 초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업종들은 생산의 해외이전으로 생산과 고용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줄어든 고용은 산업체구조화를 통해 여타 업종들로 흡수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른 한편, 지구경제의 거시적 과정이 국제이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Sanderson(2008)은 해외직접투자가 1985-2000년 사이 25개 저개발국들로부터 이주에 미치는 효과를 귀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의 스톡은 시간에 따른 순이주를 증가시키고, 무역통합은 이러한 이동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한다.

문 헌

- 김현구·이규용, 2004, 외국인력 고용의 경제적 효과,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홍배·윤갑식·오동훈, 2007,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연구, 23(3), 3-25.
- 심상완, 2008, 생산의 해외전개와 산업 재구조화: 창원 지역의 사례, 산업노동연구, 14(2), 443-483.
- 유경준, 2008, 최근 고용부진의 원인분석: 비정규직 법 효과 및 외국인 근로자 효과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11월호, 7-17.
- 이규용·박성재, 2008, 외국인력 고용구조와 영향,

- 노동리뷰, 9월호, 27-38.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종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한숙, 2004,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 정진화, 2005, 외국인력 고용의 결정 요인, 경제연구, 23(1), 145-162.
- 조준모, 2004, 외국인력의 내국 인력에 대한 대체성 분석, 유길상 외,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각년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
- 최병두, 2007,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도시공간정책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1), 82-103.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 년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 한국여성정책개발원, 2007,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 한진희·최용석, 2006,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외국인노동자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29(1), 1-22.
- Altonji, J.G. and Card, D., 1991, The effects of im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of less-skilled natives, in J. Abowd and R. Freeman (eds.), *Immigration, Trade and the Labor Market*,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201-234.
- Borjas, G., 2003, The labor demand curve is downward sloping: reexamining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 1335-1374.
- Brochmann, G., 1993, Fortress Europe: a European immigration regime in the making? Papers presented at the Sampol Conference 1993, University of Bergen, Norway, 21-22 September.
- Card, D., 2001, Immigrant inflows, native outflows, and the local labor market impacts of higher immigratio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1), 12-64.

- Carrasco, R., Jimeno, J.F., and Ortega, A.C., 2008, The effect of im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native-born workers: some evidence for Spai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1, 627–648.
- Chang, H-C., 2004,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Wage Differential in Australia, *The Economic Record*, 80, 49–57.
- Choi, B-D., 2008, Multicultural space and glocal ethics: from the space of late capitalism to spaces of recognition, *Program Book* (5th East Asian Regional Conference in Alternative Geographies), 21–41.
- Dustmann, C., Fabbri, F., and Preston, I., 2005,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British labour market, *The Economic Journal*, 115, 324–341.
- Frobel, F.J., Heinrichs J. and Kreye, O., 1980,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wood, M. J. and Hunt, G. L., 1995, Economic effects of immigrants on native and foreign-born workers, *Southern Economic Journal*, 61, 1076–1097.
- 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Blackwell; 최병우 역, 자본의 한계, 한울.
- Lalonde, R. and Topel, R.H., 1991, Immigrants in the American labor market: quality, assimilation and distribution effects, *The American Economics Review*, 81, 297–302.
- Longhi, S., Nijkamp, P and Poot, J., 2005, A meta-analytic assessment of the effect of immigration on wage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9(3), 451–477.
- Lovering, J., 1989, The restructuring debate, in R. Peet and N. Thrift (eds.), *New Models in Geography*, vol.1., Unwin Hyman, London, 198–223.
- Okkerse, L., 2008, How to measure labor market effects of immigration: a review,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2(1), 1–30.
- Overbeek, H., 2002, Neoliberalism and the regulation of global labor mobilit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581, 74–90.
- Park, S. O., 1994, Industrial restructur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major triggers and consequenc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4), 527–541.
- Rosewarne, S., 2001, Globalization, migration, and labor market formation – labor's challenge ?,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2(3), 71–84.
- Sanderson, M., and Kentor, J., 2008,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Sociology*, 23(4), 514–539.
- Smith, N., 1984, *Uneven Development: Nature,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 Cambridge: Blackwell.
- Venturini, A. and Villoso, C., 2006, Labour market effects of immigration into Italy: An empirical analysi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5(1–2), 91–118.

(접수: 2009.4.5, 수정: 2009.5.17, 채택: 2009.6.15)